

태음인 수면의 임상적 특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최정락·최재영·이영섭*·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Abstract

A Study on the Clinical Features of the Ordinary Sleeping Patterns of Taeumin Using Logistic Regression

Choi Jeong-Rak, Choi Jae-Young, Lee Yung-Seop*, Park Seong-Sik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 Department of Statistics, Dongguk University

1. Objectives

This study is for dis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leep in ordinary symptom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and to identify the patients as Taeumin by contrast with non-Taeumin.

2. Methods

There were 1,229 patients(529 men),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 about their ordinary sleep patterns. They had been diagnosed, including their Sasang Constitution, by the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at Bundang Oriental Hospital of Dongguk university. Applying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ach item about ordinary sleep patterns and the diagnosed Sasang Constitution, we can measure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f ordinary sleep patterns to the dependent variable(Sasang Constitution).

3. Results

As a result of the binary logistic analysis on the observed questionnaire, we found the similar features of the ordinary sleep patterns on Taeumin by contrast with non-Taeumin. In order of influence that identify Taeumin or non-Taeumin, first, Taeumin has a tendency that he will snore well or frequently. Second, Taeumin has a tendency that he will not dream, when he sleeps by contrast with non-Taeumin.

4. Conclusions

This study will be used to identify patients as Taeumin or non-Taeumin by means of a reference tool.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Sleep, Questionnaire, Logistic Regression.

I. 緒 論

睡眠은 사람의 일생에서 약 3분의 1의 시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이 일상을 영

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東武는 『東醫壽世保元』¹이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², 『東武遺稿』³에서 睡眠에 대하여, 병리적인 상황에서 기면상태나 불면상태, 질병의 치유과정 상에서의 수면 상태 및 수면 상태를 통한 예후의 판단, 평상시 좋은 수면 상태 등의 상황을 일부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수면 상태의 관찰은 임상적으로 汗⁵, 大便⁶, 小便 및 消化⁷와 더불어 素證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질과 체질병증을 진단하고 병

접수일 2004년 10월 21일; 승인일 2004년 12월 1일

교신저자 : 박성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

증을 관리하는 지표로도 이용되고 있다⁴.

특히,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체질간의 睡眠⁸ 양상의 차이를 비교한 임상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도 검정과정에서 내적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여러 질문 내용을 하나의 문항에 동시에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문지가 부적절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체질을 결정할 수 있는 설문지의 우선순위는 제시되지 못하였고, 단지 개개의 문항이 지니는 체질별 차이점만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최 등⁹은 이미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설문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수정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하여 체질에 따른 응답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의 우선순위를 연구·보고하였다. 그러나, 체질의학의 실제 임상적용에 있어서는 체질의학을 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체질 속성과 나머지 다른 체질을 아우르는 일반 속성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

이에 저자는 태음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태음인일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된 설문지를 통해, 태음인이 가지는 수면의 특징과 태음인을 변별하는데 유의한 수면 관련 문항의 순위를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태음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한 태음인만의 睡眠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대상 및 기간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초진으로 내원하여 체질진단을 받고 사상체질처방의 약물이나 침구치료를 받은 외래환자 1,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1) 자료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1,229명에게 사상체질과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

의 도움을 받았다.

사용한 설문지는 東武의 저술에 근거하였고, 또한 임상에서 문진 시에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Table 4의 item(①~⑩)과 같다.

2) 자료처리 및 통계

설문지 문항의 응답을 “전혀 아니다”는 1, “아니다”는 2, “보통”은 3, “그렇다”는 4, “매우 그렇다”는 5로 코드화 하여 입력하였고, 문항 10은 응답한 번호를 입력하였다. 더불어 임상적으로 판단한 응답자의 체질을 태음인, 타체질(non-Taeumin;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로 입력하여 비교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태음인과 타체질의 BMI 지수(body mass index, 체중(kg)/키(m)²)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을 이용하여 태음인을 타체질과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변수 선택조건을 완화하여(p<0.1) 가능한 많은 변수가 선택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8.1을 이용하였다.

III. 結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성별·연령별 분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0대에서 80대까지이고, 평균연령은 38.6세이며, 남자 529명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체질분포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ex and the Age N(%)

Sex	Age				Total
	≤19	20~39	40~59	≥60	
Male	59 (4.8 ^a)	240 (19.5)	179 (14.6)	51 (4.1)	529 (43.0)
Female	52 (4.2)	325 (26.4)	261 (21.2)	62 (5.0)	700 (57.0)
total	111 (9.0)	565 (46.0)	440 (35.8)	113 (9.2)	1229 (100.0)

a) % within total

Table 2. The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N(%)

Constitution	Taeumin	Non-Taeumin	Total
Male	207 (^a 57.3)	322 (37.1)	529 (43.0)
Female	154 (42.7)	546 (62.9)	700 (57.0)
total	361 (100.0)	868 (100.0)	1,229 (100.0)

a) % within Constitution
Non-Taeumin means persons who were not Taeumin.

2) 체질별 BMI 지수

임상적 체질(태음인, 타체질)과 BMI 지수를 비교한 결과, t 값이 26.181, p<0.001(p=0.000)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태음인의

BMI 지수가 평균 25.85(S.D: 2.65)로 태음인이 아닌 사람들의 평균인 21.62(SD: 2.5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nstitution and BMI Mean ± Standard Deviation

Constitution	Taeumin (N=361)	non-Taeumin (N=868)	Total (N=1,229)
BMI	25.85±2.65	21.62±2.54	22.86±3.21

t=26.181, df=1227, p=0.000

non-Taeumin means persons who were not Taeumin.

2. 설문지를 통한 태음인의 수면 특징 비교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한 응답분포나 빈도수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의 gray cell에 기록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 The Answer of the Questionnaire

Mean±Standard Deviation.(gray cell), N(%)

Item	Constitution	Never	Not	Normal	Right	Absolutely	Total
① 잘 자는 편이다.	TE	3.41±0.97	13(^a 3.8)	48(13.9)	102(29.5)	149(43.1)	346(100.0)
	Non-TE	3.31±0.95	27(3.2)	147(17.3)	278(32.7)	335(39.4)	851(100.0)
	Total	3.34±0.96	40(3.3)	195(16.3)	380(31.7)	484(40.4)	1197(100.0)
② 잠을 듣기가 어렵다.	TE	2.63±0.97	28(8.1)	154(44.8)	88(25.6)	65(18.9)	344(100.0)
	Non-TE	2.73±0.99	57(6.7)	361(42.4)	225(26.4)	177(20.8)	852(100.0)
	Total	2.70±0.98	85(7.1)	515(43.1)	313(26.2)	242(20.2)	1196(100.0)
③ 낮잠을 잘 자는 편이다.	TE	2.78±1.00	30(8.7)	119(34.6)	101(29.4)	86(25.0)	344(100.0)
	Non-TE	2.80±0.97	58(6.8)	304(35.8)	255(30.1)	210(24.8)	848(100.0)
	Total	2.79±0.98	88(7.4)	423(35.5)	356(29.9)	296(24.8)	1192(100.0)
④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다.	TE	3.29±0.94	7(2.0)	73(21.2)	99(28.8)	142(41.3)	344(100.0)
	Non-TE	3.32±0.93	18(2.1)	164(19.4)	248(29.3)	360(42.5)	847(100.0)
	Total	3.31±0.94	25(2.1)	237(19.9)	347(29.1)	502(42.1)	1191(100.0)
⑤ 잠을 자는 중 자주 깬다.	TE	2.92±1.04	20(5.8)	117(34.1)	99(28.9)	84(24.5)	344(100.0)
	Non-TE	2.90±1.04	65(7.7)	275(32.4)	231(27.2)	238(28.1)	848(100.0)
	Total	2.90±1.04	85(7.1)	392(32.9)	330(27.7)	322(27.0)	1191(100.0)
⑥ 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	TE	2.92±0.97	18(5.2)	106(30.6)	126(36.4)	79(22.8)	344(100.0)
	Non-TE	3.08±1.01	30(3.5)	231(27.2)	301(35.5)	209(24.6)	848(100.0)
	Total	3.04±1.00	48(4.0)	337(28.2)	427(35.8)	288(24.1)	1194(100.0)
⑦ 코를 고는 편이다.	TE	3.15±1.06	16(4.6)	93(26.7)	94(27.0)	112(32.2)	348(100.0)
	Non-TE	2.44±0.94	104(12.2)	412(48.3)	217(25.4)	98(11.5)	853(100.0)
	Total	2.65±1.03	120(10.0)	505(42.0)	311(25.9)	210(17.5)	1201(100.0)
⑧ 몸부림을 치는 편이다.	TE	2.86±0.93	12(3.5)	130(37.5)	110(31.7)	85(24.5)	347(100.0)
	Non-TE	2.66±0.91	49(5.8)	371(43.9)	262(31.0)	141(16.7)	845(100.0)
	Total	2.72±0.92	61(5.1)	501(42.0)	372(31.2)	226(19.0)	1192(100.0)
⑨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TE	2.56±1.10	51(15.0)	147(43.2)	59(17.4)	68(20.0)	340(100.0)
	Non-TE	2.60±1.12	109(13.1)	377(45.3)	138(16.6)	157(18.9)	832(100.0)
	Total	2.58±1.11	160(13.7)	524(44.7)	197(16.8)	225(19.2)	1172(100.0)
⑩ 평소 수면 시간은?	TE		12(3.5)	77(22.6)	138(40.5)	88(25.8)	341(100.0)
	Non-TE		36(4.3)	165(19.6)	305(36.3)	246(29.3)	841(100.0)
	Total		48(4.1)	242(20.5)	443(37.5)	334(28.3)	1159(100.0)

a) % within constitution
TE : Taeumin, Non-TE : Non-Taeumin(Non-Taeumin means people who were not Taeumin)

코드화된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평균에서 0.1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문항 1, 문항 2, 문항 6, 문항 7로 나타났다. 이상분포일 경우의 평균인 3을 중심으로 문항 1(잘 자는 편이다)은 태음인, 타체질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2(잠을 듣기가 어렵다)는 태음인, 타체질 모두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이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타체질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한 문항은 문항 6(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으로 나타났으며, 태음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타체질이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한 문항은 문항 7(코를 고는 편이다)로 나타났다(Table 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STB)의 값을 구하여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완화된 변수 선택의 조건(p<0.1)을 적용하여 변수를 선택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태음인 변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순서대로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The Result of Binary Logistic Analysis (selected item)

Item	coefficient	STB
⑦ 코를 고는 편이다.	0.7500	0.4245
⑥ 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	-0.1648	-0.0908

The minus(-) value means that Taeumin will answer 'never' or 'not' lesser than non-Taeumin about the item.

IV. 考察

睡眠은 四象醫學에서 素證의 범주에서 관찰되는 주요지표 중 하나로서, 汗, 大便, 小便 및 消化와 함께 체질과 체질병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병증을 관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⁴.

東武는 『東醫壽世保元』¹이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², 『東武遺稿』³ 등에서 여러 부분에 睡眠에 대한 내용을 남기고 있는데, 병리적인 상황에서 기면상태나 불면상태, 질병의 치유과정 상에서의 수면 상태 및 수면 상태를 통한 예후의 판단, 평

상시 좋은 수면 상태 등을 일부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素證에 관한 임상적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설문지를 이용한 汗⁵, 大便⁶, 睡眠⁸ 및 식욕식사습관消化⁷ 등에 관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도 검증과정에서 내적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 문항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묻는 문항들이 많아 설문지가 부적절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睡眠⁸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별 문항이 가지는 체질별 차이점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으나, 문항들 사이의 체질변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최 등⁹은 이미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설문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수정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체질에 따른 응답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의 우선순위를 연구보고하였다. 그러나, 체질의학의 실제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체질학을 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체질 속성과 나머지 다른 체질을 아우르는 일반 속성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

이러한 설문지의 문제점과 분석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 등⁹이 수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하나의 설문 문항은 하나의 내용만을 묻도록 하여 설문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서열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순서대로 1, 2, 3, 4,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서열척도는 체질별 평균을 통하여 평균적 경향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문항의 상호관련성과 체질변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한 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회귀분석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종속변수의 척도가 연속형이 아니고 질적인 변수인 범주

형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오차항의 정규분포성과 등분산성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체질사이의 비교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태음인과 타체질의 두 가지 범주로 제한되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

사용한 설문지의 응답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선택할 때, p 값이 0.05 이하인 문항을 선택하면 너무 적은 문항의 수가 선택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변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수 선택조건을 조금 더 완화하여 p 값을 0.1 이하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각 항목에서 p 값을 0.05 이하로 하여 선택된 변수의 수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로지스틱 계수나 표준화 계수의 의미가 없다. 로지스틱 계수나 표준화 계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로, 이는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1개의 문항만이 선택될 경우,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상실되므로 p 값을 0.1 이하로 완화하여 2개 이상의 문항을 선택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각 문항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큰 값의 표준화 계수를 지니는 문항은 체질 변별에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준화 계수의 값이 양이면 “그렇다”는 쪽의 의미이고, 음이면 “아니다”는 쪽의 의미이다.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방향성의 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태음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하여 태음인만이 지니는 수면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에서 王好古, 李梴, 張仲景, 朱肱 등의 말을 인용하는 중에 병리적인 상황에서의 기면상태나 불면상태를 언급하였고, 소음인 치험례¹⁾나 소양인 치험례²⁾에서 병의 치료 과정

중에서 잠을 자는 것이나 수면 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사상인이 잠을 자는 모습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은 숨소리가 안정되고 반듯이 누워 조용하게 자는 것이 좋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호흡이 크고 이리저리 힘 있게 움직이며 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³⁾ 이는 수면 중에 陽人에게는 부족하기 쉬운 陰的인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陰人에게는 부족하기 쉬운 陽的인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 陰陽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이 『東武遺稿』에도 나타나고 있다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소양인은 ‘能食安寢’을 좋은 징조로 설명하고 있다.⁵⁾

설문지 문항의 응답 빈도와 응답률을 Table 4에 나타냈으며, Table 4의 gray cell에 응답의 평균적 경향성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즉, 평균이 3 보다 큰 수치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보다 작은 수치는 “아니다” 혹은 “절대 아니다”의 부정적인 답변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1)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寒病論」. 이제마 著. 동의학연구소 譯.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서울, 2002: 99.

“又少陰人小兒一人 下利青水 面色青黯 氣陷如睡 用獨蔘湯 加生薑二錢陳皮一錢砂仁一錢 日三四服 數日後下利十餘行 大汗解.”

2)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脾受寒寒病論」. 上揭書: 169, 173.

“嘗治少陽人 傷寒發狂譫語證 …… 凡用石膏八兩 末境病人腹中 大脹 角弓反張之證 出焉 角弓反張後少頃 得汗而睡. 其後 又有一少陽人十七歲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二貼藥力 十倍於知母白虎湯 可知矣 …… 其翌日 又用六貼 連五日 日用四五六貼 發狂 始止 夜間 或霎時就睡 然不能久睡 便覺 又日用三四貼連五日 頭頂兩鬢 有汗而能半時刻就睡 稍進粥飲少許.”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第五統」. 李濟馬 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232.

“太陽少陽 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 吉 太陰少陰 寢眠呼吸洪壯轉輻有力則 吉.”

4) 『東武遺稿』. 李濟馬 著. 량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 海東醫學社, 서울, 1999: 167, 221.

“太陰少陰人 眠時 呼吸雄大 能轉輻而確壯則吉也 眠時 呼吸微細 不能轉輻而沈潛 則凶也 太陽少陽人 眠時 呼吸沈潛 轉輻不頻 則吉也 太陰少陰人 眠時 呼吸雄大 轉輻頻促 則凶也. 太陽少陽人 呼吸安靜 臥眠時 不輻轉 則吉 太陰少陰人 眠時 呼吸雄壯 輻轉反側則吉.”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第五統」. 上揭書: 249.

“能食安寢 少陽之吉祥.”

연구결과 평균에서 0.1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문항 1(0.10), 문항 2(0.10), 문항 6(0.16), 문항 7(0.71)로 나타났다. 이상분포일 경우의 평균인 3을 중심으로 문항 1(잘 자는 편이다)은 태음인, 타체질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2(잠을 들기가 어렵다)는 태음인, 타체질 모두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이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타체질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한 문항은 문항 6(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으로 나타났으며, 태음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타체질이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한 문항은 문항 7(코를 고는 편이다)로 나타났다(Table 4).

10개의 수면 문항에 대하여 체질변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태음인 변별에 유의한 문항은 2개로 그 영향력은 문항 7, 문항 6의 순이었다(Table 5). 이는 태음인과 타체질이 서로 반대의 응답을 하는 경우였으며, 평균적 경향성의 차이가 큰 순서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7(코를 고는 편이다)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언급한 태음인과 소음인의 좋은 양상의 수면 모습에서 뒤척이는 등의 몸의 움직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단지 호흡의 소리가 크고 거칠다는 것에서 응답자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문항이다. 이 문항 7에 대한 응답결과는 타체질에 비해 태음인이 많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태음인이 태양인을 제외한 소양인과 소음인보다 ‘코를 고는 편이다’라는 최 등⁹⁾의 결과와 부합한다.

문항 6(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은 최 등⁷⁾의 연구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분석된 문항을 이용한 문항으로 타체질인에 비해 태음인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이다’라는 최 등⁹⁾의 결과와 유사하나, 태음인은 잠을 잘 때 꿈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임상에서 체질을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태음인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수면에 대한 문항 중에서는 문항 7과 문항 6의

순서로 문진을 함으로써 환자의 태음인 진단에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태음인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문항 7에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면, 환자가 태음인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환자가 문항 6에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면, 환자가 태음인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이 가지는 수면의 특징만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추후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에 대해서도 같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땀, 대변, 소변, 소화상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考察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임상적으로 태음인으로 체질진단을 받은 외래환자 361명과 태음인이 아니라고 체질진단을 받은 외래환자 868명, 총 1,22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응답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태음인이 의심되는 환자를 태음인으로 변별하는데 보다 유의한 문항을 영향력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음인은 태음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코를 고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태음인은 태음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잠을 잘 때 꿈이 많은 편은 아니다.

VI.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개정판. 여강출판사, 서울, 2002: 99, 169, 173.
2. 李濟馬 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232, 249.
3.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 海東醫學社, 서울, 1999: 167, 221.
4. 김선민, 송일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稿』에서 素證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2): 67-77.

5. 최재영, 이영섭,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땀(汗)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대한한의학회지. 2002; 23(4): 186-95.
6.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2): 58-68.
7. 백태호, 최정락, 박성식. 소화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 16(1): 112-9.
8.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수면의 특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15(3): 204-15.
9. 崔載永. 太少陰陽人の 素證에 관한 臨床的 研究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1-2, 13-14, 56.